

남미 미관합동 경제사절단 (한/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 주제발표, 한/브라질 산업협력포럼 참가)

-심영섭 선임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실)

1. 출장자

-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심영섭

2. 출장기간

- 2010년 9월 12일 - 9월 18일

3. 출장지역

- 보고타(콜롬비아), 상파울루(상파울루)

4. 출장목적

- 한·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 주제발표 : Korean Economy & Bilateral

Economic Cooperation(별첨)

- 한·브라질 플랜트협력포럼 참가

5. 출장 내역

(1) 한국-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

<목 적>

- 한·콜롬비아의 주요산업간 교류 및 협력 지원 / 우리기업의 對콜롬비아 수출 및 수주활동 지원
- 양국 기업인간 네트워크 강화 및 FTA 추진 분위기 조성

<행사 개요>

- 일시/장소 : 2010. 9. 14(화) 10:00~14:00 / 보고타상의 회의장
- 주 최 : 대한상의, 보고타상의, 한·콜롬비아상의연합회
- 참 석 자 :
 - 한국측 :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, 대한상의 국제본부장, 주콜롬비아 한국대사, KIET 및 사절단 참가기업인 등
 - 콜롬비아측 : 보고타상의 회장, 한콜롬비아 상의연합회 이사장, 상공관광부 차관, 관련 기업인 등

□ 세부 시간계획

개 회 식	
10:30~ 10:35	홍성화 주콜롬비아 한국대사 축하
10:35~ 10:45	Dra. Consuelo Caldas 보고타 상의회장 환영사
10:45~ 10:50	김경식 지경부 무역투자실장 축하
10:50~ 11:00	Hon. Dr. Carlos De Hart 콜롬비아 상공차관 축하
본 회 의 (동시통역 제공)	
11:05~ 11:25	콜롬비아 투자환경 및 투자프로젝트 참가방안 (Dr. Juan Carlos Mondragon 상공장관 아시아 담당보좌관)
11:30~ 11:50	한국경제 현황 및 양국간 협력방안 (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11:50~ 12:10	양국간 경제협력 우선분야 (Dr. Carlos Ronderos 전 상공장관)
12:10~ 12:30	한-콜롬비아간 자원협력 방안 (정웅태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)

(2) 한 · 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

- 콜롬비아는 중남미 4위의 경제강국이자, 풍부한 석유 · 광물자원*, 높은 교육수준 등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로 평가
 - 콜롬비아의 원유 매장량은 14억 배럴로 중남미 6위, 생산량은 618천 b/d로 중남미 5위 ('08년 말)
 - 콜롬비아는 또한 남아메리카 유수의 광업국으로 금, 은, 백금, 철, 수은, 석탄, 석유, 보크사이트, 니켈, 몰리브덴, 우라늄 등 생산 (백금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)
- 이미 진출이 이루어진 자동차, 가전, 휴대전화 등 이외에도 이번에 양국 공동연구 결과로 도출된 소프트웨어, 바이오에너지, 섬유, 출판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

- (자동차) 전체 시장의 약 40% 점유(소형택시는 90%가 한국산), (가전) 60% 이상을 점유

< 한-콜롬비아 산업협력분야 발굴 공동연구 >

- ◆ **수행기관** : 서울대학교(국제대학원), Sergio Arboleda 대학 외 보고 타 소재 3개 대학 공동수행
- ◆ **주요결과** : 소프트웨어, 화장품, 석유화학과 바이오에너지, 출판, 섬유 및 의류, 자동차 부품, 전기기기 등 7개 분야에서 **한국의 기술과 콜롬비아의 시장·노동력을 결합**시키는 방안 모색 (한국기업의 현지진출 및 제3국 동반진출)
 - ① **(소프트웨어)** 한국 선두기업이 ‘콜’측에 진출하고 이후 중남미 스페인어권 시장 동반진출
 - ② **(화장품)**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의 **풍부한 원료**를 바탕으로 재료를 개발하여 한국에 공급
 - ③ **(석유화학·바이오)** 브라질보다 우수한 ‘콜’측 **바이오에너지 생산성**을 바탕으로 한국기업 진출
 - ④ **(출판)** 콜롬비아측은 **디자인 예술성을 가진 인력**이 풍부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주시장 동반진출
 - ⑤ **(섬유·의류)** 콜롬비아측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활용
 - ⑥ **(자동차 부품)** 한국차의 점유율이 큰 만큼 A/S시장을 우선 진출하고 부품 생산으로 확대
 - ⑦ **(전자기기)** 한국의 기술력을 큰 분야이므로 우수기업이 현지 진출하여 직접 생산·공급

- 또한 바라까베르메하 정유시설 현대화사업, 카르타헤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등에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기대
 - 바라까베르메하 정유시설 현대화사업 : 기존 일일 25만배럴 규모 설비의 현대화 및 일일 5만배럴 정유능력 증설 프로젝트 (발주액 : 30억불 규모)
 - 카르타헤나 석유화학단지 건설 : 신규 석유화학단지 건설(60억불 규모)
- 한편 콜롬비아 측에서는 광물·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섬유산업의 공동 기술개발·해외진출, 콜롬비아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, 소프트웨어산업 기술협력(애니메이션, 게임 등) 등에 대하여 한국과의 협력에 강한 의지 표명

(3) 한·브라질 플랜트협력포럼

<목 적>

-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브라질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플랜트시장 진출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

<행사 개요>

- 일 시 : 2010. 9. 15, 10:00~14:00
- 장 소 : 브라질 상파울루 그랜드 하이얏 호텔
- 주최/주관 : 지식경제부/플랜트협회, 코트라
- 참 석 자:
 - 지식경제부 : 무역투자실장, 플랜트팀장 등

- 브라질측 : 개발상공부 차관, 산업개발청장, Investe São Paulo, São Paulo Secretariat of Development, Queiroz Galvão Óleo e Gás S.A. 등
- 한국측 경제인(20) : 무역보험공사, GS건설, 대우인터내셔널, LG상사, 한국전력기술, KIET 등

○ 토의 내용 :

- 한국의 플랜트산업 현황
- 상파울루 투자 현황 및 사업 기회
- 브라질의 조선 및 해양 사업 기회
- 브라질 환경사업 분야 제도 및 프로젝트 소개 등

참고 자료

한 브라질 무역 투자 현황

1. 무역 현황

- o 양국 교역은 '08년 멕시코와 함께 교역규모 100억불을 돌파하면서 중남미 최대 교역국중 하나
 - 브라질은 한국의 12위 수출대상국이자 26위 수입국, 19위 교역국 (2009년)
 -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브라질 수출은 금년들어 호전되며 전년 대비 94.3% 증가한 4,422백만불, 수입은 8.1% 감소한 2,087백만 불로서, 7월 말 현재 교역 흑자는 2,335백만불로 사상 최대 예상

< 한·브라질 연도별 무역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	'04	'05	'06	'07	'08	'09	'10.7
수 출	금액	1,785	2,411	3,063	3,487	5,926	5,311	4,422
	증가율	56.9	35.1	27.1	13.8	69.9	-10.4	94.3
수 입	금액	2,195	2,501	2,707	2,794	4,380	3,744	2,087
	증가율	35.6	13.9	8.2	3.2	56.8	-14.5	-8.1
무역수지		△411	△90	357	694	1,545	1,567	2,335

- o 브라질의 경제성장 및 경기회복에 따라 7월 현재 수출은 승용차 (86.0%), 경유(305%), 평판디스플레이(435%) 등이 성장세를 시현하며 수출을 견인

- 수입은 철광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(-17.0%)로 전년대비 하락

< 한·브라질 품목별 교역현황 >

(단위: 천 달러, 전년동기대비%)

순위	수출(2010. 7월)			수입(2010. 7월)		
	품목명	금액	증가율	품목명	금액	증가율
	총 계	4,421,839	94.3	총 계	2,087,162	-8.0
1	승용차	995,425	86.0	철광	598,479	-17.0
2	무선통신기기부품	605,793	17.2	강관제품	372,155	32.5
3	경유	331,635	305.0	박류	201,706	204.5
4	칼라TV	302,572	97.6	두류	145,841	-42.3
5	평판디스플레이	145,417	435.2	선철	102,657	-0.1

2. 투자 현황

o 對브라질 한국투자는 1995년 Mercosur 동맹 체결에 즈음하여 브라질을 거점으로한 남미시장 진출을 위해 활발 전개

* Mercosur :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우루과이의 관세동맹체

- 1968년~2010. 6월 한국의 對브라질 투자총액은 25억불(신고기준)로서 매년 지속 증가

- 주로 제조업*, 광업분야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

* 주요 브라질 현지 투자기업 : LG전자, 삼성전자, Posco, 삼성전기, CJ

o 브라질의 對韓 투자는 '94년 처음 시작하여 2009년 누계기준으로 12,319천불을 투자

- 업종별로는 서비스 분야가 10,963천불로 브라질 전체투자액의

89%를 차지하고 전기·가스·수도·건설사업(900불), 제조업(457천불) 순임

- 1962년~2009년 브라질의 대한 투자는 對韓 총투자 총액 160,511,672천불(신고기준)중 12,319천불(0.01%)

< 한·브라질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천 달러, 건)

구분		'04	'05	'06	'07	'08	'09	'10.6월	누계*
對브 투자	금액	23,414	249,350	207,716	214,418	739,840	114,906	255,636	2,500,583
	건수	9	31	22	35	37	33	37	314
對韓 투자	금액	-	900	158	321	-	222	139	12,458
	건수	-	2	2	2	-	4	3	33

* 누계 : 對韓 투자(1994년-2010. 6월), 對브라질 투자 (1968년-2010. 6월)